

◇저백혈구증이 동반된 혈액암 환자에 합병된 침윤성 폐진균 질환의 치료에 있어  
외과적 시술의 역할

박승준, 김진국, 김관민, 심영목, 이흥기, 이경수, 한정호

삼성 서울 병원 흉부외과, 혈액 종양 내과, 진단 방사선과, 진단 병리과

**배경 및 목적** : 혈액암으로 인해 고농도 항암 화학 요법제의 투여를 받는 환자에 발생한 침윤성 폐진균 질환 [invasive pulmonary mycotic disease]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최근, 적극적인 외과적 적출술을 이용하여 이를 치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침윤성 진균 질환은 진균종 [fungus ball of the lung]과 달리 내과적인 질환으로, 외과적 적출술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과치료 [overtreatment]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삼성 서울 병원에서 침윤성 진균 질환에 대해 최소한의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한 효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6년 7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삼성 서울 병원에서 혈액암으로 인해 항암 화학 요법의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저백혈구증 [ $< 500/cm^3$ ]이 생겼으며 그후 침윤성 폐진균 질환이 의심되어 흉부외과 시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14명이었다. 외과적 시술은 전례에서 정밀제거술 [Precision excision]이나 폐 썬기절제술 [Wedge resection]등의 최소 절제술이 시행되었으며 이들중 병리학적 및 미생물학적 확진에 의해 항진균 약물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는 모두 8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치료후의 결과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인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확진된 환자중 5명은 aspergillosis로, 2명은 mucormycosis로 확진되었으며 1명은 hyphae는 관찰되나 aspergillosis와 mucormycosis의 감별 진단이 어려웠다. 전례에서 amphoterecin B를 2 gm이상 사용하여 치료하였다. 이상의 8명중 7명의 환자에서 폐 질환의 완치가 관찰되었으나 aspergillosis 환자 한 명은 치료중 bacterial pneumonia가 합병되어 사망하였다. 치료 결과에 관련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인자중 저백혈구증의 회복 여부만이 예후에 영향을 주었다.

**결론** : 혈액암으로 인해 고농도 항암 화학 요법제의 투여를 받는 환자에 발생한 침윤성 폐진균 질환 [invasive pulmonary mycotic disease]에 대해 적극적인 절제술은 과치료라고 사료되며 흉부외과적 치료의 기능은 정확한 진단과 합병증에 대한 최소 처치라는 보조 치료에 있다고 판단된다.

책임저자: 김진국(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발표자: 박승준(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